

국민의힘, 압도적 지지율에도 신중 “지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뉴스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오전 구로역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결정된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 우위를 점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7 보궐선거야말로 국민의힘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 후보로 단일화 하면서 당의 결속을 다시 만들 수 있었다. 승리를 이룩해 당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고 오 후보의 지지율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

김종인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유승민 “1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각오 필요”

박영선 “민생시장 선출돼야... 2%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어”

20%나 앞서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작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들도 흔히 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용의주도하게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말 한마디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하는지 철

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지도부와 일부 후보의 막말이 참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도 “재보궐선거역사상 이렇게 큰 선거가 없었다”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번이나 졌던 연패 사슬을 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부

산의 우리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 중도보수 지지자 등은 절대 지만하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며 “1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거꾸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열세를 보이고 있는 박 후보는 오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지율 격차에 대해 “이번 선거에는 코로나19로 너무 지쳐 있는 서울 시민들을 보듬고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민생 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저는 딱딱딱 하루에 지지율 2%씩 올릴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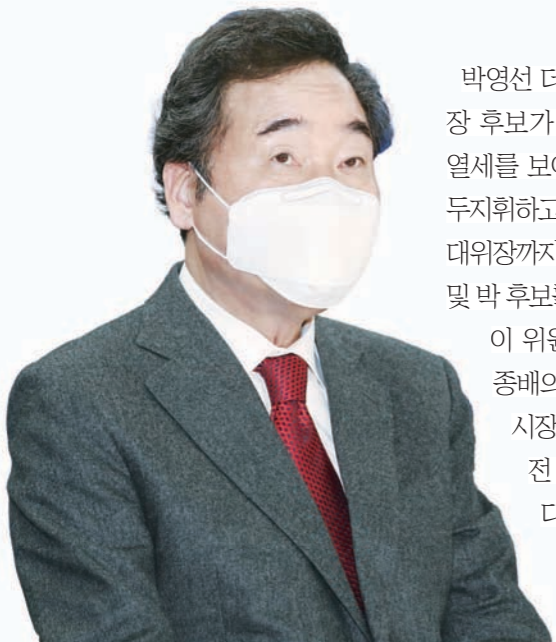


뉴스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오전 영암역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한대 기자

수세 몰린 與... 이낙연까지 나서 입단속·지지 호소

임종석, 박원순 옹호 발언 논란... 李 “신중 기해야”
SNS 글 올려 “통렬히 반성·혁신할 것, 도와달라”
박영선 띄우기 나서... “경제 위축 탈출의 적임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적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까지 입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에 방문한 이 위원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나서 내부 인사들의 입단속 및 박 후보를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이틀 박 전 시장 옹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입전 실장에 대해 “신중했으면 한다”며 “입 전 실장의 발언이 무슨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입 전 실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다.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24일에도 지난 20년간 서울시장 이력을 언급하며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속도와 효율이 강조됐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등장으로 인해 고조되는 여당과 박 후보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지호소에도 나섰다. 그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여러분, 도와달라”며 “민주당은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뵈겠다. 잘못된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동산 버리를 뿌리 뽑고 공직사회를 맑게 고쳐야 하는 시기. 코로나 19도 그에 따른 민생과 경제의 고통도 빨리 끊어야 하는 시기. 서울시 대전환, 가덕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미래비전을 시작할 시기다”며 “그 일을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일을 잘할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조지 결집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가 긴박하다. 전하든, 문자로든 가까운 분들에게 호소드리자”며 “저도 전화로 공조지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후보 띄우기에도 열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을 빨리 완화해서 우리가 경제적 위축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런 것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박영선 후보가 가장 적임자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찬주 기자

정부 “선거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박범계·전해철·권덕철, 대국민 담화문 발표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선거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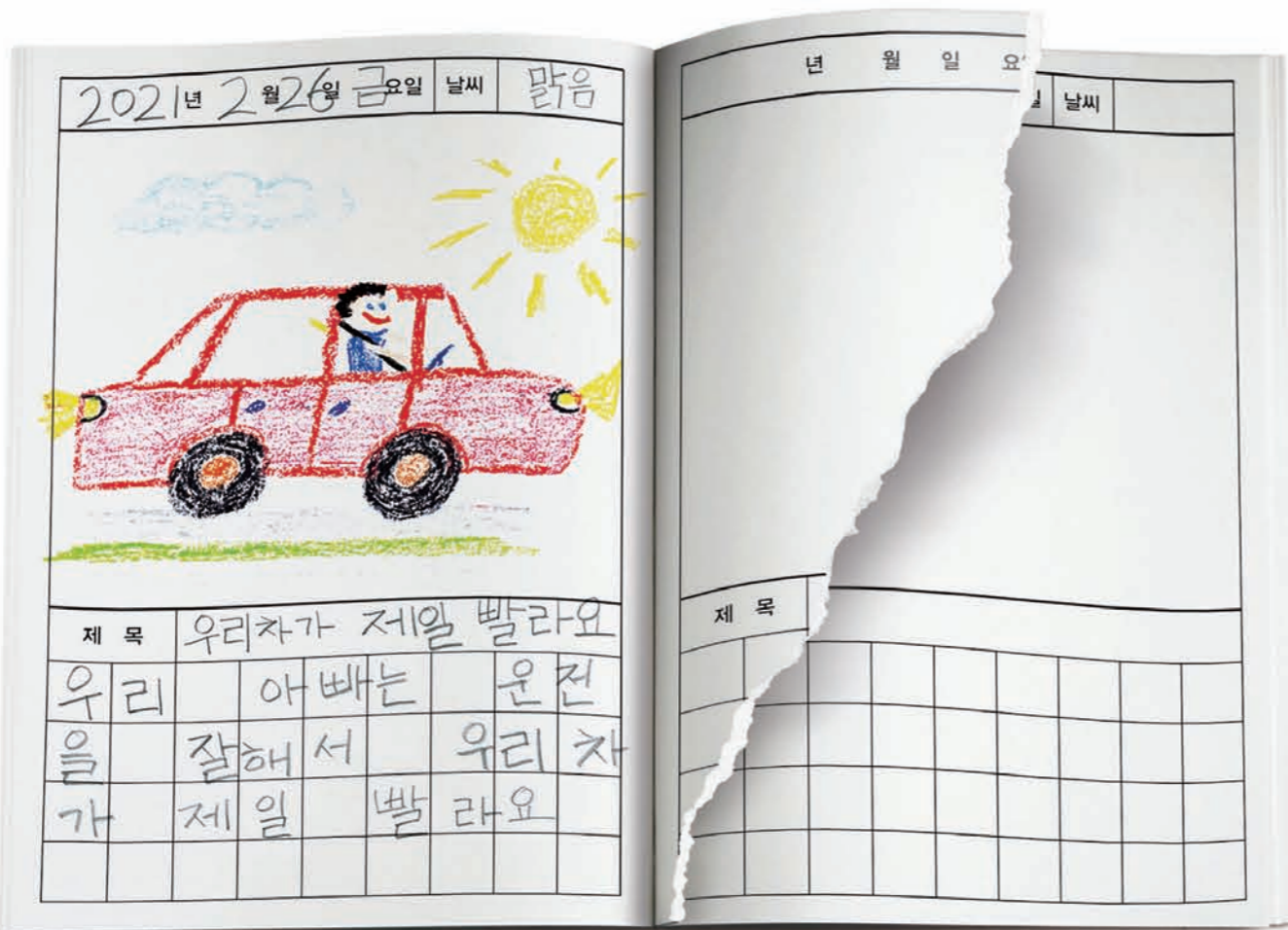
세 장관은 △안심 투표 위한 범정부 차

원 적극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권 행사 보장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 단속 및 처벌에 범정부 차원 역량 총동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법상 명시된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이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표 참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우 기자



공통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과속하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것 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사랑한다면 내일을 지켜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켜고 트렁크열고 도로 밖 우선대피 사고신고 1588-2504